



4면
도교육청, 수업혁신박차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음 2월 22일) 제32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농수산물 수출 확대 나서

도, 전북 농수산물 수출 촉진협의회 열고 계획 등 논의 내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대응 방안도 올해 수출 목표 6억 달러·3개 분야 9개 사업 44억 투자

전북도는 지난 10일 도내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 농수산물 수출 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6개 수출 지원 기관 수출 전문가 및 수출 기업들이 참석해 올해 농수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논의하고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 6억 달러 달성, 2023년까지 9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도는 올해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도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전라북

도 농수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 9개 사업에 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집중 공략과 수출 신시장 개척 등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4개 사업에 12억9,000만원을 투자한다. 또,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경쟁력 강화 2개 사업에 23억원, 축산 및 수산물 수출 지원 3개 사업에 8억4,000만원을 투자한다.

특히, 미국·일본 등 해외 거점유망 시장을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중화권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지난해 2억 → 3억) 등 박

람회 관측행사를 통한 시장 개척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그간 지원되었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2023년 20억 원)가 2024년부터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선진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찾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귀 기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관련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요소에 따른 수출 촉진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를 분기별 1회(년 4회) 개최해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 10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전북 농수산물 수출 촉진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익산, 공공 산재전문병원 건립 최적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제시돼... 시, 필요·타당성 확보 유치전 나서기로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 지리적 강점을 가진 익산이 전북 공공 산재전문병원 건립의 최적지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익산시는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공공 산재전문병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유치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전북 산재전문병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이 제안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한정수 도의원, 오원선 시의원, 전북도청 최영두 보건의료과장, 홍성호 공주대 경제학 교수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용역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만경강 수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병원 건립 최적지로 제안했다. 타 시군과 인접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부지조성 시 도로 등 산업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수변도시 매입사업과 연계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환경적으로도 치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은 전주, 군산, 김제, 완주 가운데 위치한 도내 인구의 76.8% 차지하는 북부권 지역의 중심이자 호남 교통 요충지로 전북권역을 아우르는 공공 산재병원 건립지로 지리적 이점이 있다.



최근 열린 전북 산재전문병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석재·보석산업이 발달한 익산은 분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폐증 환자가 도내 전체 환자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적인 산재 치료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에 속하는 익산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병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고 산재병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해당 연구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한 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익산시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라북도 공공 산재전문병원의 익산시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용역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추진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재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은 "도내 공공 산재전문병원 부재로 환자가 타 시도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 조성 및 산재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한 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 산재전문병원 익산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전라북도,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 산재전문병원을 성공적으로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기자

‘회원제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 익산지역 입점 무산?

도 ‘입점 계획 유지’·익산시 ‘우려 불식 집중’

시 “왕궁물류단지 재추진 등 익산 유치 방향 논의... 코스트코 측과 추진 방안 협의”

도 “전북 입점 확실시... 익산시·코스트코 측이 해결방안 모색 중 상황 지켜봐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의 익산지역 입점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에 익산시가 불식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지역 내 입점을 확실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의 지난달 코스트코를 찾아 대표이사를 설득, 입점 대상 지역을 익산으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왕궁물류단지 측과의 재협의를 원할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타 부지의 입지 선택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김완수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정현을 시장과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사장이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코스트코 익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왕궁물류단지 재추진, 대체 부지 추진 등 코스트코를 익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코스트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의 익산지역 입점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에 익산시가 불식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코스트코 김해점의 모습이다.

코 측이 이탈 중 익산을 찾아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북도는 권민호 교통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코스트코 측의 전북 입점 계획은 유지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권 과장은 코스트코 측과 익산왕궁물류단지와의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코스트코는 왕궁물류단지 4만9,580㎡의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부 계약을 지난 2021년 12월 체결했다.

이 후 시행사의 계약 미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를 들며 올해 1월 계약 해지를 왕궁물류단지 측에 통보했다.

권 과장은 “코스트코의 전북 입점은 확실한 상황”이라며 “현재 익산과 코스트코 측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부안군
BUAN-GUN

자연이 빛은 보물, ★ 낭만이 숨쉬는 부안에서 만나요

내소사

변산해수욕장

직소폭포